

詩
.....

閱覽日記

姜 好 武

새가 눈을 뜨는 바다의 아침은
물이랑이며 물마루에서 환히 빛난다
썰물과 밀물이 멎자,
뜰에 질펀히 구슬이 출렁인다.
새벽마다 징이 울려
묵은 닭을 실은 수령의 노새들은
넋과 샅을 잃고도
은 꿈을 덧대어 돛을 깐는다.
기우는 바다의 모서리에서
높게 일어나는 교묘의 그림자들은
그저 하얀 동그라미 안에
놀라운 말이며 뜻이 센 글을 쓴다.
노래가 퍼졌다.
날아 기른 하늘이며 죽어 남긴 흙에
뜨거운 땀으로 일군 숲이 있다.
문다위 가족으로 배운 복이 있다.
불꽃섞은 얼음으로 눈을 고치며
벌거벗은 꽃술 열매 뿌리의
이름을 짓고 나이를 헤아리는
그대는 모든 것을 배운 삶으로
밝을 날을 알아 가늠한다.
사라지지 않는 하얀 빛의 날개여.